

국내·해외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합니다

- 통일부, 전남지역·해외(호주) 이산가족 110여 명 초청 행사 개최 -
【관련 국정과제】 116.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

- 통일부는 5월 16일(토) 오전 11시,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「전남 지역·해외(호주) 이산가족 초청행사」를 개최한다.
 - 본 행사에는 전남지역 이산가족 및 해외(호주) 이산가족 110여 명이 참석하며, 이산가족 관련 정책 설명과 문화공연, 오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.
 -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해외(호주) 이산가족 30명도 함께 참여한다. 이산의 아픔과 그리움을 갖고 있는 국내·해외 이산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.
 - 통일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·세대별 찾아가는 이산가족 초청·위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.
 - 통일부는 이번 전남 지역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(6월), 제주(10월), 수도권(11월) 등에서 초청·위로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와 더불어, 통일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위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 100명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위로 물품을 5월 18일(월)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.

※ 대상자 : 고령 이산가족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(△107~100세 64명 △99~98세 36명)

담당 부서	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	책임자	과 장	이혜련 (02-2100-5910)
		담당자	주무관	오승준 (02-2100-5915)